

 POSRI 보고서

에볼라 사태와 국제사회의 향후 과제

박경덕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poleeye@posri.re.kr)

[목 차]

1. 에볼라 사태 경과
2. 확산의 배경은 '세계화'
3. 상황 종료까지 남은 과제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4년 1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병한 에볼라는 인근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를 비롯, 세계 9개국에 환자가 발생하면서 2015년 3월 1일 현재 2만3969명의 감염자와 9807명의 사망자가 발생(WHO)**
 - 지난해 9월을 고비로 확산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
 - 유엔을 비롯, 미국·영국·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이 구호물자와 의료진을 파견해 ‘에볼라와의 전쟁’에 동참
 - 한국도 세 차례에 걸쳐 시에라리온에 해외 긴급 구호대 24명을 파견하고 총 1,26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실시
- **발병 초기 에볼라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로 망자(亡者)의 시신을 만지는 아프리카식 장례 문화가 지목됐지만, 유럽과 미주까지 퍼지게 된 본질적인 배경은 인력과 물자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는 에볼라 확산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시신을 씻기고 만지고 입 맞추는 전통적인 서아프리카의 장례문화 때문에 에볼라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고 발표
 - 하지만 주변국가는 물론, 미주와 유럽까지 에볼라가 확산된 데는 경제·문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간 교류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 **WHO는 올해 1월28일 발표한 ‘에볼라 상황보고서’에서 “에볼라에 대한 대응이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선언**
 - WHO는 “지난 1년간 에볼라와의 전쟁이 전염을 늦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전염을 종료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
 - 두 번째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지원’과 직격탄 맞은 세 ‘취약국가(Fragile States)’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의 재건
- **한국은 의료인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에볼라 전쟁’ 참전국 위상 확보**
 - 에티오피아와 남아공이 한국전쟁 당시 병력을 보내줌으로써 지금껏 그 나라의 이름이 참전국 명단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리카가 힘든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을 도와준 나라로 이름을 남기게 됨
 - 한국이 도와준 흔적을 영구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중국처럼 독자적인 진료센터를 만들고, 에볼라 피해국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ODA 자금 등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남북한 동시수교국이 51 개나 되는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한 외교 격전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뢰를 얻을 경우, 향후 유엔에서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우호 세력을 대거 확보하는데 유리

1. 에볼라 사태 경과

□ 2014년 1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병한 에볼라는 인근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를 비롯, 세계 9개국에 환자가 발생하면서 2015년 3월 1일 현재 2만3969명의 감염자와 9807명의 사망자가 발생(WHO)

○ 2014년 5월 기니 인접국 시에라리온으로 확산된 이후, 6월에는 라이베리아로 퍼지면서 이들 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

- 시에라리온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동남부 국경도시 코인두(Koindu)에서 숨진 5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첫 희생 사례로 기록
- 코인두는 1월 에볼라가 처음 시작된 기니 남서부 국경도시 구에케도우(Gueckedou)와 인접한 곳에 위치
-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라이베리아에서도 본격적으로 에볼라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 라이베리아는 이들 세 나라 중 가장 늦게 에볼라가 시작됐지만, 9월 초순까지 엄청난 증가세로 확산을 주도(표1 참조)



출처 : 국경없는 의사회

〈표1〉 서아프리카 3국 에볼라 감염·사망자 추이(누적, 2014년 5월~)

		5월 7일	6월 5일	7월 6일	8월 6일	9월 10일	10월 7일	11월 4일	12월 7일	1월 4일	2월 8일
기니	감염자	235	351	408	495	899	1350	1760	2292	2775	3044
	증가율	-	49	16	21	81	50	30	30	21	10
	사망자	157	226	307	367	568	778	1054	1428	1781	1995
	증가율	-	43	35	19	54	36	35	35	25	12
시에라리온	감염자	-	89	305	717	1478	2937	4862	7897	9780	10,934
	증가율	-	-	242	135	106	98	65	62	24	12
	사망자	-	7	127	298	536	930	1130	1768	2943	3341
	증가율	-	-	1714	134	79	73	21	56	66	14
라이베리아	감염자	-	-	131	554	2415	4076	6619	7719	8157	8881
	증가율	-	-	-	322	335	68	62	16	6	9
	사망자	-	-	84	294	1308	2316	2766	3177	3496	3826
	증가율	-	-	-	250	344	77	19	14	10	9

자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취합해 저자가 정리, 증가율은 전월비 %

○ 그밖에 나이지리아, 말리, 세네갈,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소수의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

- 나이지리아의 경우, 20명의 감염자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WHO가 지난해 10월20일 에볼라 발병 종료를 선언
- 미국도 4명이 감염돼 1명이 사망했으나 이후 추가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세네갈과 스페인, 영국에서는 감염자만 각각 1명씩 발생
- 기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리의 경우, 9개국 중 가장 늦게 에볼라가 발생한 나라이지만 감염자 8명, 사망자 6명에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 올해 1월 18일 말리 정부와 유엔이 상황 종료를 선언

□ 지난해 9월을 고비로 에볼라 기세가 서서히 꺾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

○ 작년 여름 에볼라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방문해 “에볼라를 당장 퇴치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고 서아프리카 뿐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유엔 등 국제기구도 가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회원국들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안보리가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의를 연 것은 2000년과 2011년의 에이즈 확산 방지 결의안 때에 이어 세 번째

○ 세계 각국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에볼라와의 전쟁’에 동참

- 쉐 WHO 사무총장은 “에볼라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더 많은 의료진”이라며 특히 의료진 파견의 중요성을 강조
- 이에 아프리카연합(AU)을 비롯,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쿠바, 인도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의료 전문가를 파견

○ 중국 파견 규모, 미·영 이어 세 번째 ... 한국도 의료진 파견

- 외교부 발표 자료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현재 미국은 라이베리아에 군 병력 4000명과 보건인력 130명을 파견하고 7억6300만 달러를 지원
- 영국은 시에라리온에 군병력 750명과 보건인력 1000여명을 파견하고 5억1200만 달러를 지원

¹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관련 각국 지원 현황' 언론 보도자료

- 서아프리카에 수만 명의 자국민이 나가 있는 중국도 1억36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영국에 이어 지원액 3위를 차지. 중국은 또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 각각 100명이 넘는 보건인력을 파견
- 특히 중국은 라이베리아에 4100만 달러를 들여 독자적인 에볼라 진료센터를 건설해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²
- 한국도 세 차례에 걸쳐 시에라리온에 해외 긴급 구호대 24명을 파견하고 총 1,260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실시

2. 확산의 배경은 '세계화'

□ 발병 초기 에볼라가 급속도로 확산된 직접적인 이유는 망자(亡者)의 시신을 만지는 아프리카식 장례 문화

○ 최초 발병국인 기니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에볼라가 국경을 넘어 확산된 원인은 한 주술사의 장례식(WHO)

- 기니 에볼라 환자들이 시에라리온 동남부 도시 Kenema에 살던 주술사에 치료받으러 오며 확산³
- 이 주술사 역시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했는데, 그의 장례식에 기니에서 온 조문객을 비롯, Kenema 현지 주민들까지 그의 시신을 만지는 등 전통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거 에볼라에 감염됨
- WHO는 시에라리온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만 365명에 달한다고 발표

□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장례식 때 망자의 시신을 씻기고 만지고 입 맞추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확산에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

○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는 지난해 10월30일 에볼라 확산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시신을 씻기고 만지고 입 맞추는 전통적인 장례문화 때문에 에볼라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발표⁴

- 에볼라 바이러스는 특히 감염자가 사망한 순간, 가장 왕성한 감염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시신을 만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적⁵

² 장웨이(張越) 라이베리아 주재 중국대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짓는 에볼라 진료센터가 사태 종료 이후 라이베리아에서 영구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

³ WHO, Global Alert and Response (GAR) 보고서 'Sierra Leone: a traditional healer and a funeral'

⁴ SCIENCE, 'Strategies for containing Ebola in West Africa'

⁵ NYT, 'W.H.O. Issues New Guidelines on Safely Burying Ebola Victims', '14년 11월7일

- 이러한 지적이 나온 후 라이베리아에서는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이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명령⁶을 내림
- 하지만 화장이 서아프리카의 전통 장례문화와 충돌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 심지어 에볼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 감염 위험이 커지기도 했음⁷
- 라이베리아 정부 당국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강제 하면서 그나마 에볼라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함
- 이에 반해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 화장 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시에라리온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올해 연초까지 월별 사망자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졌음(표1 참조)
- 에볼라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유럽과 미주까지 퍼지게 된 본질적인 배경은 인력과 물자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 최초 발병국 기니에서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로 에볼라가 확산될 때까지 이들 나라 국경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들 세 나라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으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또한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현지 의료 봉사 도중 에볼라에 감염된 자국민을 본국으로 데려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국 내 감염원 역할을 하기도 함

3. 상황 종료까지 남은 과제

- WHO는 올해 1월28일 발표한 ‘에볼라 상황보고서’에서 “에볼라에 대한 대응이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선언
- WHO는 “지난 1년간 에볼라와의 전쟁이 전염을 늦추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부터는 전염을 종료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올 들어 1월말부터 기니와 시에라리온에서 다시 조금씩이나마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방증

⁶ BBC, 'Liberia orders Ebola victims' bodies to be cremated', '14년 8월4일

⁷ The World Post, 'Cremation Fears Leave Beds Empty At Ebola Treatment Centers In Liberia', '14년 10월4일

- WHO는 에볼라 종료라는 목표를 가능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감염자를 발견·치료하고 ▶안전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
- 유엔은 그러나 에볼라 발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
 - 데이비드 나바로(David Nabarro) 유엔 에볼라 특사는 지난 달 24일 뉴욕 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에볼라 발병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가 ‘제로-제로(신규 감염자 0, 신규 사망자 0)’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
-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 에볼라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 2의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
 - 에볼라를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수단은 백신·치료제 개발과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지원
 - 현재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라이베리아에서 ‘지맵(ZMapp)’의 공식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나 개발 완료 시점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
 -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병률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염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추적해 격리시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⁸

□ 직격탄 맞은 세 ‘취약국가(Fragile States)⁹’의 재건도 국제사회의 숙제

- 이번 에볼라 사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숙제를 던짐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나라로, 국가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 시에라리온의 '1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400달러로 세계 228개 국가 중 208위였고, 기니는 1,100달러로 218위, 라이베리아는 700달러로 223위¹⁰를 차지

⁸ NYT, 'Ending the Ebola Outbreak' '15년 2월 24일.

⁹ 저발전 국가의 개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국제기구·단체들은 중점 개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행정서비스, 정통성 유지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험에 처해있는 국가들을 '취약국가'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는 행정서비스와 국가권력 부문에서, 기니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취약국가 범주에 속한다. (Frances Stewart and Graham Brown, 2009)

¹⁰ CIA The world factbook

○ 세 나라 경제는 “불구”에 비유될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에볼라의 충격은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세 나라의 경제를 불구로 만들(cripple) 것” 이라고 발표
- 보고서는 시에라리온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월 추정치 8.9%에서 10.9%p나 추락한 -2.0%가 될 것으로 예상
- 기니 또한 지난해 6월 예상치 4.3%에서 -0.2%로 4.5%p 떨어지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라이베리아는 같은 기간 전망치가 6.8%에서 3.0%로 3.8%p 낮아짐

<표2> 에볼라로 인한 서아프리카 3국 올해 GDP 손실 예상액 및 성장률 전망치 변화

	'15 년 GDP 손실 예상액	'14 년 6 월 GDP 전망	'15 년 1 월 GDP 전망
기니	5 억 4000 만 달러	4.3%	-0.2%
라이베리아	1 억 8000 만 달러	6.8%	3.0%
시에라리온	9 억 2000 만 달러	8.9%	-2.0%

출처 : 세계은행(WB)

□ ‘실패국가(Failed State)¹¹’ 위험에 빠진 세 ‘취약국가’

○ 국민들이 과일박쥐를 잡아먹어야 했던 ‘취약국가’ 기니

- 지난해 에볼라가 처음 발병한 것은 가난한 서아프리카 주민들이 과일박쥐를 잡아먹은 것이 원인이라는 게 정설로 통함
-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는 이들의 식량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평소에도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 ‘생존의 위기’에 몰린 세 나라

- 암울한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이들 세 나라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당장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
- 에볼라 확산으로 이들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산물 유통이 급감하고 시장이 사라져 식량 가격도 폭등하는 등 식량 위기가 더욱 악화

¹¹ 몰락하여 상당한 외부의 지원 없이는 시민을 부양할 수 없으며, 정부가 그 국가의 영토적 경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세계정치론, 2009)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에볼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100만 명분에 달하는 식량 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 세 나라가 ‘실패국가’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지원이 시급
 - 국제사회는 9.11 테러를 계기로, 구호대상으로 접근하던 저발전 국가들을 안보적 측면에서도 우선적인 개발협력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
 - 이는 저발전 국가가 ‘실패국가’로 추락하면서 국제사회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
 - 특히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는 비교적 최근까지 내전을 겪은 나라로, 민생이 불안해질 경우 또다시 국가안보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 못함
 - 국제사회는 에볼라 사태를 겪기 전부터 최빈국 범주에 속했던 이들 세 나라에 대해 향후 안보적 측면까지 염두에 둔 전 방위적 개발협력 과제를 추진할 필요

4. 시사점

- 이번 에볼라 사태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교훈은 ‘One World’
 - 당초 서아프리카 소국 기니에서 에볼라가 발생해 주변국으로 퍼지는 동안, 많은 나라들이 자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주와 유럽에까지 확산
 - 이는 세계화 시대에 인력과 물자가 대륙을 넘나들면서 전염병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 결국 에볼라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팀 파견을 통해 에볼라의 근원을 진압하는 ‘선제적 방역’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
-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료진 파견과 재정 지원을 통해 ‘에볼라 전쟁’ 참전국 위상 확보
 - 에티오피아와 남아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프리카가 힘든 전쟁을 치를 때 한국이 도와준 것을 아프리카도 기억할 것
 - 이러한 기억은 한국이 ‘미래 동반성장 파트너’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향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
- 54개의 나라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원은 경제와 외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

- 아프리카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 51개¹² 나 되는 남북한 외교 격전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뢰를 얻을 경우, 향후 유엔에서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우호 세력을 대거 확보하는데 유리
- 중국처럼 이번 에볼라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도와준 흔적을 영구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국의 독자적인 진료센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¹³
- 한발 더 나아가 에볼라 피해국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ODA자금 등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
- WH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볼라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3억7000만 달러로, 이중 3월3일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1억200만 달러에 불과해 2억6800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¹⁴

¹² 외교부 홈페이지(2014년 12월 현재). 참고로 아프리카의 뒤를 이어 구주 48개국, 아주 26개국, 미주 23개국 순으로 남북한 동시수교국이 많음

¹³ 한국에서 파견한 의료진은 이탈리아 비정부기구(NGO) '이머전시'가 운영하는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인근의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

¹⁴ <http://apps.who.int/ebola/>

[참고자료]

[출판물]

존 베일리스 외 편저.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번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9년.

마틴 메러디스. 『아프리카의 운명』. 이순희 번역. 서울: 휴머니스트, 2014년.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Reducing poverty by tackling social exclusion. A DFID Policy Paper". (London:DFID, 2005)

Frances Stewart and Graham Brown, "Fragile States" CRISE WORKING PAPER No. 51, CRISE(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University of Oxford. 2009).

Rotberg, R. I. State Failure and State Weakness in a Time of Terror.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Rotberg, R. I.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Stefan Wolff. "State Failure in a Regional Context". Cambridge Journals Online, Published online: 2010년 8월 26일.

World Bank. 'The Economic Impact of Ebola on Sub-Saharan Africa: Updated Estimates for 2015'. 2015년 1월 20일

[홈페이지]

외교부, 세계보건기구

CIA The world factbook, SCIENCE

[국내외 언론]

NYT, BBC, The World Post, Aljazeera

연합뉴스, 뉴스1 등 국내 언론